

번호 III-10

| | | | | | | |
|--|--------------------------------|--|-----------------------|-------|--------------------|--|
| 제 목 | 국 문 | 단주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활단주프로그램 참여군을 중심으로- | | | | |
| | 영 문 | Evaluation of the Length of Sobriety: Its Relationship to the Alcoholics Anonymous Program in Korea | |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정윤철 ¹ , 김한중 ² , 신인순 ² , 김동기 ³ 정윤철 클리닉 ¹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² , 연세의대 의학통계학과 ³ | | | | |
| | 영 문 | Yoon Chul Chung ¹ , Han Joong Kim ² , Ein Soon Shin ² , Dong Kee Kim ³ Dr. Chung's Clinic ¹ ,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² , Dept. of Biostatistics, College of Medicine ³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 | | |
| 분 야 |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 발 표 자 |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 구 연 () 포스터 (○)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 | | | | |
| <p>1. 연구 목적</p> <p>우리 나라에서 1982년부터 시작된 자활단주(AA: Alcoholics Anonymous) 프로그램에의 참여 효과를 현재 단주지속기간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현재 단주지속기간이 AA모임 참여정도 및 AA프로그램 실천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가. 연구대상</p> <p>조사 당시(1998년 5월말 현재) 서울 및 지방의 총 30개 AA모임에 참석했던 3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다.</p> <p>나. 자료수집</p> <p>자기기입식 조사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98부(32.7%)를 회수하였고, 우편으로 112부(37.3%)를 회수하여, 배포된 300부 중 총 210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70.0%). 본 조사를 하기 전에 서울지역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1개 AA모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p> <p>다. 통계분석 방법</p> <p>현재 단주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현재 단주지속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다변량 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개발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만을 통제한 축소 모형(reduced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때, 이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였던 연령, 결혼상태, 그리고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지의 여부만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둘째, 축소 모형에 AA참여 및 AA프로그램 실천에 관한 변수를 추가한 완전 모형(full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았다. 6개 독립변수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는 낮은 값(1.04-1.15)을 보였다.</p> | | | | | | |

3. 연구 결과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92.3%가 남자였고, 연령별로는 40세 이하가 36.3%, 41-50세가 44.9%였다. 이혼을 한 경우는 15.5%였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36.7%였다.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2.9%였고,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경우가 77.8%를 차지하였다. AA가입 전 음주경력은 평균 21.5년이었고, AA가입 전의 음주빈도를 보면 50.2%가 매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AA참여기간은 평균 3.9개월이었고, 월 평균 AA모임 참여 횟수는 평균 12.3회였으며, AA프로그램 내용(12단계) 중에서 제 11단계인 기도와 명상을 실천한 경우는 66.7%였다.

연구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한 경우가 미혼인 경우에 비하여, 그리고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현재 단주지속기간이 길었다.

단주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만을 통제 한 축소 모형에서는 연령($p<.001$)과 결혼상태(이혼)($p<.05$)가 단주지속기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축소 모형에 의해 단주지속기간은 14%를 설명할 수 있었다. AA참여 및 AA프로그램 실천에 관한 변수가 추가된 완전 모형에 의하여 단주지속기간은 42%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기도와 명상을 실천하는 것(제 11단계)이 단주를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다($p<.05$).

4.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스스로 알콜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자활단주프로그램인 익명의 알콜중독자(AA)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AA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주 측면에서 평가한 국내 최초의 연구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AA참여기간을 다변량 분석으로 통제 한 후에도 AA프로그램의 실천 12단계 내용 중에서 제 11단계인 기도와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단주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한 적절한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통하여 오랫동안 재발 없이 단주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AA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를 단주 측면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